

208장 내 주의 나라와

- 1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 2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 3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1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2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취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3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싸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 4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 담당

8/9(화)	8/10(수)	8/11(목)	8/12(금)	8/13(토)	8/15(월)
이교용 집사	구성수 집사	고재학2 집사	권인영 집사	류광언 집사	김경원1 집사

2022년 8월 12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08장
기도	권인영 집사
성경봉독	역대하 7장 19~20절
찬양	주님의 음성 내가 들으니
설교	『성전보다 순종, 순종보다 은혜』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211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역대하 7:19~20>

- 19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역대하 7:5,11>

- 5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11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와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사무엘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로마서 9: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갈라디아서 5:24~25>

-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8월 12일(금)

은혜의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寶血)로 해갈(解渴)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할 일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용서와 축복이 아름다운 곡조가 되고 감동적인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새문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헌당예배를 속히 드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지게 하시고,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8·15 구국기도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시대가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과 슬픔에 싸인 이웃을 위로하여 진정한 부흥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수해(水害)로 인한 위기의 시기에 온 국민이 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필요에 민감하며,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사회·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소외계층에게 회복과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